

포천사회 知識人 ⑭

대진대학교 공명수 교수

# ‘잃어버린 고향 대체都市’ 포천에 건설

## ‘포천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문화콘텐츠 開發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공명수교수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진목초등학교, 고현중학교, 남해종합고등학교, 경상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 교수는 1994년 대진대학교에 부임하여 영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소설, 소설 번역연습, 영상언어번역연습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공 교수는 또 미국소설학회 섭외이사, 영어교육평가학회 부회장, 존스타인 백학회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 교수가 전공한 현대미국소설은 미국의 꿈 찾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꿈이란 1620년경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유럽에서 소외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본국에서 잃어버린 제2의 아담을 다시 찾기 위해 미국을 떠나면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나타나고 다시 말해 미국의 꿈으로 표현된 것이다.

미국소설의 중요한 모티프는 소외된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운동으로 제1 아담(원조)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제2의 아담을 추구하고 1890년에 프론티어가 소멸함으로써 제3의 아담을 찾아 나선다. 이것은 끝없는 자기정체성(꿈) 찾기 운동이다.

결국 미국의 꿈 찾기는 보편화된 인간의 꿈 찾기와도 연결된다. 종심·기대문화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찾기 운동과도 일맥 상통한다. 결국 지역사회의 공동체 네트워크 결성으로 지역공동체와 중심문화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태학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중심문화와 주변문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대립요소이지만 경계를 허물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존지점을 찾는 작업이 바로 21세기의 중심화두이며 어느 한 쪽을 배제하고는 살 수 없고 서로의 합목적적 합리가 필요한 사회다.

공 교수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탄강 네트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한탄강의 수질오염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것을 우리지역 공동체의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건설하기 위해서 학자로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공 교수는 내비효과에 주목한다. 개미들이 조금씩 흙을 날라 태산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비의 작은 날개 짓이 뉴욕의 큰 폭풍우를 동반한다는 사실에서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해조문화회 활동에 대해서도 공 교수는



문혀져 있고 배제되고 잘못 인식돼 왔던 신소설의 선구자이며 개척자인 지역문화인 박원운을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 교수는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 구성의 산파역할을 감당했다. 1999년 교수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총무, 2000년에는 부회장으로서 대학의 자주성 확보와 교수들의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대학이 안고 있는 난제를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공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지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발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공 교수는 각 문화나 문화단체 구성원들의 견해를 관(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하에서 공동보조를 맞춰야 하고 지역문화네트워크가 관주도가 아닌 각 문화 및 문화단체의 주체들이 유기적인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포천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미지 만들기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생태공동체 결성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민들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생태마을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서울 인근도시들이 대부분 신도시형이나 아파트 숲이라면 우리 숲은 신도시형 아파트

주거단지과 병행해서 아주 다양한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고풍스럽고 주변자연환경을 살리는 주거단지와 병행하면 포천의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며 이것은 소규모 생태마을만으로도 포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큰 것과 작은 것, 현대적인 것과 고풍스런 것,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 등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충족된 느낌으로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함께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회귀본능, 즉 귀소본능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문화환경을 갖춘 생태마을을 조성해야 말로 포천이 꿈꾸는 도시의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아파트단지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생태마을을 통해 10~15 만명의 인구는 늘어 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병원과 학교 등의 시설도 갖추게 되면 포천이라는 이미지와도 부합될 수 있다.

‘잃어버린 고향 대체도시’를 포천에 건설한다면 포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귀소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이같은 생태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요구된다. 업적위주의 개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텃밭, 고풍, 고교, 강, 물, 언덕, 문화시설, 숲이 있는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며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 미래에 대한 비전, 꿈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로 꾸어 가야 한다. 서울은 문명화된 도시, 포천은 과거를 추억하는 추억의 도시가 될 것이다.

포천의 역사 및 문화작품 속의 유적이나 인물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포천의 정체성 찾기 운동과 포천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 교수의 주요저서 및 주요논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소설의 안과 밖(도서출판 동인, 1999) ▶포스트모던 사회의 이해(대진대학교 출판부, 2000) ▶편지중적 환상과 실제(도서출판 동인, 2006) ▶토마스 핀천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1996) ▶토마스 핀천 소설에 나타난 러드주의(2000)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사회복지시설 문화환경 갖춘 생태마을 조성이 ‘꿈꾸는 도시’

### 취재파일 경기대진TP 왜 제대로 못하나

# 안일한 사업추진 안되니까 남의 탓 사업중요도 감안 軍협의 이뤄져야

## 군부대 남북화해 지역현안사업 감안, 군협의 당연



취재국장 하승완

경기대진TP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 신축이 軍협의의 받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자작동 588-4번지 일대 5천400여명에 연면적 3천600여평, 건축면적 734평의 지상6층 지하1층 규모 포천시와 경기도 및 대진재단에서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軍협의가 문제가 되고있는 자작동 588-4번지 일대 토지는 경기대진TP가 2005년11월 매입했다. 매입할 당시 이 토지는 前토지주가 공장설립허가 받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용항공기지구역 軍협의의 문제가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때 軍협의는 1층 건물에 해당하는 6m 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군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경기대진TP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소홀히 했을까하는 문제가. 말할 것도 없이 軍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북부권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집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대진TP 사업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기대진TP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기공식까지 하고 올해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실시계획 용역을 마쳤다.

그리고 軍협의를 요청할 때까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 5월초 軍협의의 요청했다가 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때가 되어서야 軍협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軍협의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진대 총장이 직접 6군단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협의를 한바 있으나 軍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급기야 5월10일 재접수한 軍협의서를 스스로 취하했다.

경기대진TP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합지원센터 신축추진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 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시계획 용역을 마칠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었는가?

부지를 매입을 할때부터 검토해야 할 사항을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라는 말인가? 그리고 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야 군부대를 향해 비난의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남북화해 시대 군부대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혹은 국가적 사업인데 6·70년대 식의 군사정권 발상을 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다.

경기대진TP 관계자는 종합지원센터에서 군부대까지 거리가 800m가 되는데, 군부대 시설이 보인

다고 軍협의의 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군부대 시설은 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등산로는 개방해 놓고 공공건물 신축을 막는 것은 군부대의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익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군부대가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한다. 군부대가 초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군부대가 시청과 대진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 확대개발을 막고, 군부대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선연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군부대가 민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기인하고 있어 종합지원센터 신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말 (軍협의)안될 경우 대체부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진TP 관계자의 말도 일부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지원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이곳이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안되니까 남을 탓하는 모양새다.

군부대가 軍협의의 해 줄 수 없는 이유로 군작전상 불가피성, 야간행기운행, 사격장 소음발생시 민원발생, 보호구역내 軍협의의 형성성 등 4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군부대측에서는 “이전과 같이 6층에 36m 건물을 짓겠다고 軍협의의 요청하면 또다시 2층의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종합지원센터) 건물 높이를 6m 이내로 설계하든지 방음벽이나 차단벽 설치하겠다고 하면 군용항공기법 등을 고려, 보안 협의의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로서는 재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화해 무드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관련 군부대는 예하부대가 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사령부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대 측은 경기북부권역 경기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인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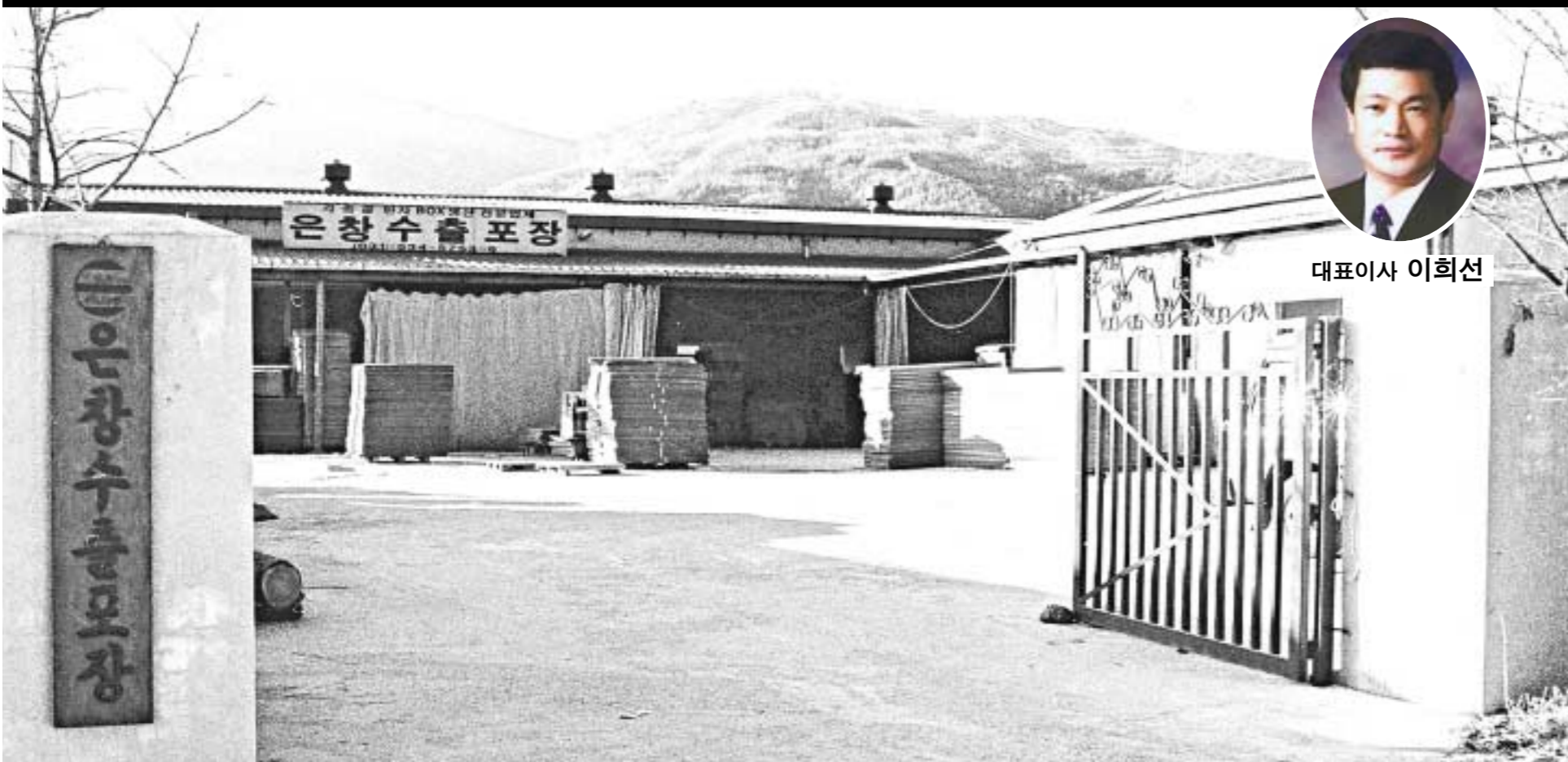
이번 문제와 유사하게 사례는 과주 LCD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과주 LCD 단지는 미래국가 사업인 만큼 軍협의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바 있다.

6군단대 6만여명의 포천시유지에 대해 시는 지난 50년 이상 동안 단 한번도 권리 주장을 해 본 적이 없다. 포천시유지는 시민들의 재산인데 시민의 재산을 이같이 취급해도 되느냐고 시관계자들에게 물고싶다. 이번 경기대진TP사업 또한 안일한 행정, 잡자의 행정이 빚어낸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사업이건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처음 시작단계부터 모든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추진해야 한다. 말로만 역동하는 포천시청이라고 하지 말고 주도면밀한 사전검토 후에 업무를 추진하길 당부한다.

###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기업

# 제품의 품질과 신용을 보증하는 골판지 · 포장박스 생산



대표이사 이희선

### 생 · 산 · 품 · 목

- △ 내수용 △ 수출용 △ 식품용
- △ 공업용 △ 농산물 △ 가구 등 다수

### 기 · 계 · 제 · 원

- △ 다이커터 3도 인쇄기 △ 후렉소 3도 인쇄기
- △ 베가 · 자동토크스기(大) △ 자동접착기(大)
- △ 자동철기계 등

## 은창수출포장(주)

www.eunchang.co.kr

전화 : 031)534-5753~5 / 팩스 : 031)534-5756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